

노예 선을 탄 의사들

(의료사고 4)

인터넷을 즐기는 사람들은 여러 사이트를 검색하는 동안 의료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억울하다며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호소하는 글을 여기저기에서 접하게 된다.

한 때 '수사모(수영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안티 J병원'이라는 부제를 내걸고 J병원에서 시술 도중 사망한 수영 양의 아버지에 대한 사인 규명과 보상을 호소하고 있었다.

"억울하게 죽은 내 동생을 살려 주세요"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 어떤 이는 전주 Y병원에 입원한 동생이 병원 측의 무성의와 무사 안일로 인해서 하루 만에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또 어떤 산부인과에 입원하여 분만 도중 과다 출혈로 사망 직전까지 갔던 어떤 산모의 남편이 허탈한 기분으로 네티즌에 호소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서양 의학의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가 당시로서는 놀라운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환자에게 접근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의학이 발달한 동양의 의학은 명의(名醫)의 개념과 의도 요병(醫道療病)이라 일컫는, 도(道)로서 병을 치유한다는 다분히 철학적인 개념이 의술(醫術)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다.

즉, 현대의 양 의학적 질병의 개념은 병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거기에 맞춘 치료적 과정을 역설하고 있는 반면, 한의학은 인체를 또 하나의 작은 우주로 가상, 기(氣)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양 의학은 어떤 질병이 있고, 그것을 치료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과감히 치료약을 쓰거나 몸의 일부를 여는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 어떤 약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수술을 어떤 방식으로 행할 것인가는 순전히 치료를 하는 의사의 지식과 양식에 의한 판단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환자의 몸에 약을 쓰거나 침습(侵襲)적인 수술을 하는 의사는 당연히 깊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과 그것들에 바탕을 둔 결단성과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이 있어야 한다.

J병원의 사망 사고에 길길이 뛰던 수사모의 구성원들은 시간이 가면서 그 눈조가 변했다. 처음에는 시술 의사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어느 날부터, 좀 더 구체

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강경 투쟁을 하는 도중 병원이 돌아가는 사정을 이해하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어 버렸다. 그들은 후일 이렇게 말했다.

저는 우선 현실적인 수가제가 실시되어야 함을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수가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 환자의 생명 유지나 겨우 시킬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고 봅니다. 질적인 의료를 가로막는 장치인 셈이죠. 환자를 위한 보다 질적인 의료를 위한 제도로 거듭나야 합니다.

처음 병원과 의사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으로 일관하던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 버린 것이다. 낮은 수가로 인해 하루에 보아야 할 환자의 수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호자에게 잘 설명해 주지 못 하여, 즉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하여 일어나는 불필요한 분쟁은 없어져야겠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 의무는 다 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낮은 의료비로 인해 병원은 많은 수의 환자를 제한 없이 보아야만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있고, 그 때문에 거기에서 일하는 의사는 ‘노예 선을 탄 노예’와 같은 처지로 전락한다면 과연 누가 자신 있게 의도 요병(醫道療病)을 논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